

降神巫服에 나타나는 袍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굿 무복을 중심으로-

김은정 * (광주대학교 예술대학 디자인학부 겸임교수), 김용서(전남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교수)

본고는 한국무속의 기능성과 상징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무복의 전통성에 관한 연구이다. 오늘날 무당들이 입고 의례를 수행하는 무복에는 당대의 복식만이 아닌 사라진 복식습속도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강신무복(降神巫服)은 전통복식의 형태를 보여주는 유품이 실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무당이 굿을 할 때 실제로 착용하고 있기에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재 굿거리에서 입고 있는 무복은 전통복식의 일부이며 현대무복은 특별한 관심이나 전통무복을 고수하려는 의식 없이 간편함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무당들이 그들의 개성과 위치확보를 위해 변형(變形)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양상과 요인을 서울굿무복 중 포(袍)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굿거리에 따른 착용 역할과 구성요소의 형태 변형을 파악하여 전통복과의 상관성을 밝히고 굿거리무복을 체계화시키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 목적을 위해 일차적으로 현존하는 무복의 유품을 중심으로 자료조사와 문헌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차적으로 현대 굿거리무복 중 각거리마다 신을 상징하는 포(袍)의 종류와 형태비교를 위한 현장조사를 병행하면서 굿거리 참관과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강신무복의 시대적 변형 가운데 포의 변화요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태변형에 따른 변화는 무복의 포에 나타난 소매의 경우 대부분 광수(廣袖)인데 1900년대부터는 소매의 진동에 아구지를 내어 손을 꺼낼 수 있도록 하였다. 무복에 나타난 트임의 경우는 옆길과 뒷길에 트임을 주어 평면구조의 특징을 보완하면서 장식이나 실용성을 나타낸다.

둘째, 착용역할에 따른 변화는 포의 의미나 역할이 시대에 따라 무당이 굿거리 주신(主神)의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이거나 무복의 원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부터 유래한다.

셋째, 무복의 형태에 따른 구성요소 변화는 현대 무복에서 사용되는 문양이나 장식기법이 여러 가지 추상개념으로 상징하는 의미가 전통복 보다는 과장되고 현란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는 무당의 개성이 표출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무복의 색채는 무당 개성에 따라 선택되고 있으며, 주술적인 의미보다는 형태모방에 따라 색채 선택이 다양해지고 있다.